

국내외 거시경제 동향

2020.9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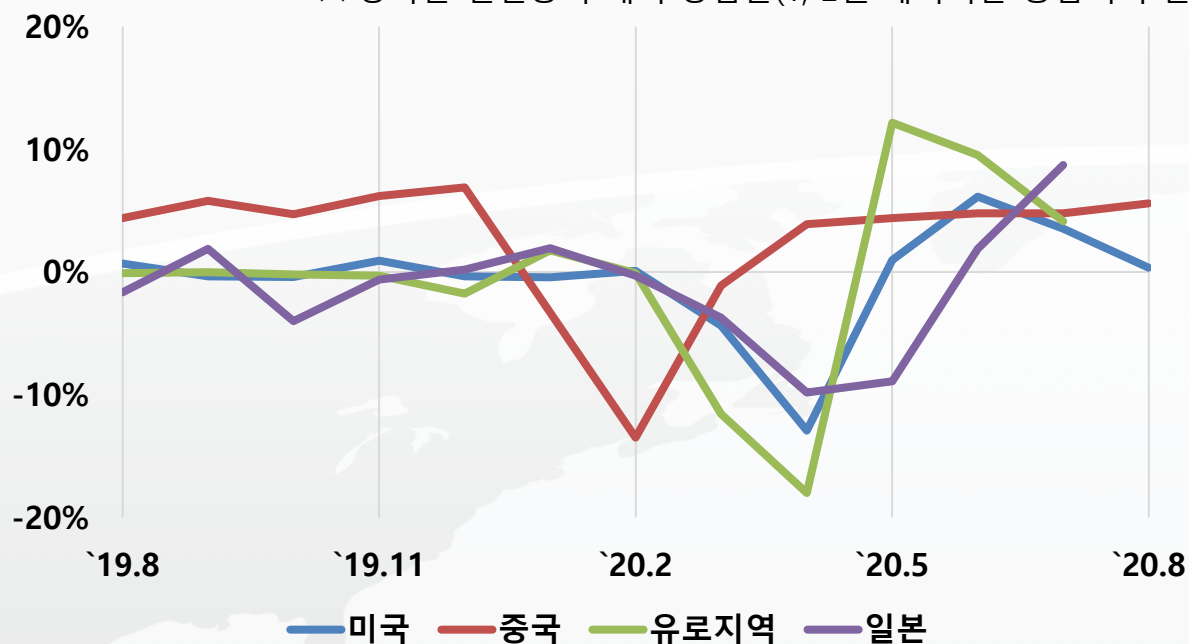
해외경제연구소 산업경제팀

■ 주요국 경제동향 : 코로나19 재확산 등으로 불안한 회복세

- (미 국) 생산·소비 증가세, 고용지표 개선 등 완만한 회복세 유지
- 8월 산업생산(전월 대비, +0.4%) 및 8월 소매판매(전월 대비, +0.6%) 모두 4개월 연속 플러스 성장하였으나 증가폭은 둔화
- (중 국) 생산·수출 증가세 지속 및 소매판매 증가세로 전환 등 양호한 회복세 지속
- 8월 산업생산(전년동월 대비, +5.6%)은 5개월 연속 완만한 증가세 유지, 8월 수출(전년동월 대비, +9.5%) 또한 지난 달에 이어 큰 폭 증가
- (유로존) 코로나19 재확산·브렉시트 협상 난항 등으로 경기 불확실성 확대
- 7월 산업생산(전년동월 대비, +4.1%)은 전월에 비해 증가세가 축소되는 가운데, 8월 합성(제조업+서비스업) PMI지수는 하락 (51.9)
- (일 본) 생산 부문 약진에도 불구하고, 내수 부진 여전
- 7월 산업생산(전월 대비, +8.7%)은 수출(전월 대비, +5.7%) 개선 등으로 7년 만에 최대 상승폭, 7월 소매판매(전월 대비, △3.4%)는 마이너스 전환

전산업생산지수(전월 대비 증감률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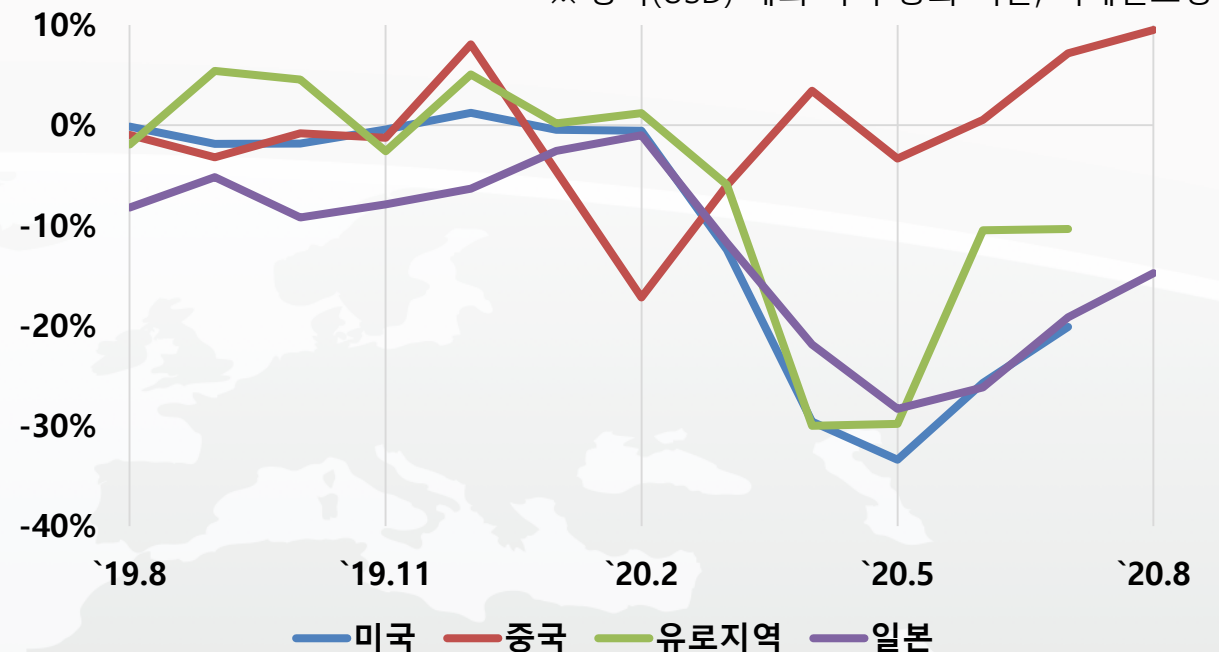
※ 중국은 전년동기 대비 증감률(1, 2월 데이터는 통합되어 발표)



자료 : Bloomberg

수출 추이(전년동월 대비 증감률)

※ 중국(USD) 제외 각국 통화 기준, 비계절조정



자료 : Bloomberg

국내 경제동향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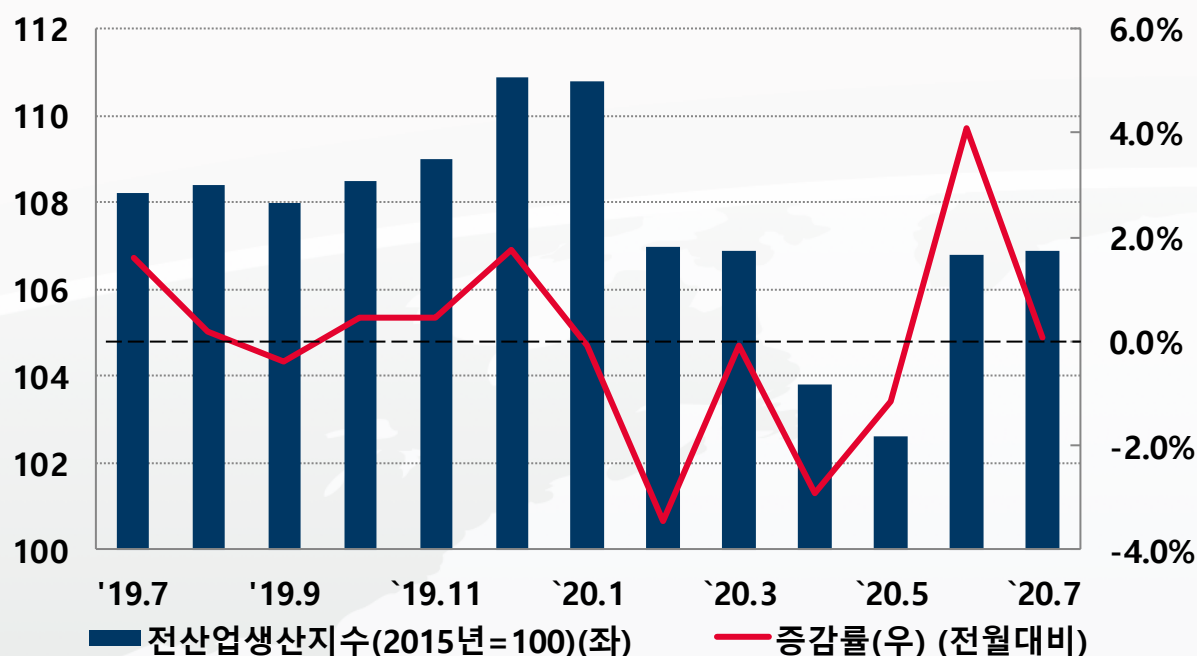
■ 산업 활동 : 전월에 이어 비교적 양호한 수준 유지 (7월 기준)

- (생산) 7월 전산업생산(전월 대비, +0.1%)은 광공업(+1.6%) 및 서비스업(+0.3%) 생산 증가로 지난 달에 이어 증가세 유지
 - 광공업 생산은 수출부진 완화 등으로 자동차(+14.4%), 기계장비(+6.0%) 등을 중심으로 2개월 연속 증가
 - 서비스업 생산은 국내여행 증가, 스포츠·공연재개 등으로 숙박(+19.8%), 여가(+7.7%) 등을 중심으로 4개월 연속 증가
- (경기) 7월 동행종합지수 순환변동치(97.2p)·선행종합지수 순환변동치(100.3p) 모두 2개월 연속 증가 (기준치 100)

■ 수출 동향 : 두 달 연속 한 자릿수 감소율 기록

- 8월 수출은 전년동월 대비 9.9% 감소한 396.6억 달러로, 일평균 수출액은 코로나19 이후 최대치 기록
 - 中·美·EU 등 3대 시장에 대한 일평균 수출액이 플러스 성장하는 한편, 15대 품목 중 반도체 등 5개 품목 일평균 수출액(전년동월 대비)이 증가
- * 주요 품목별 일평균 수출액 증감률(전년동월 대비, %) : (반도체)9.9 (컴퓨터)120.7 (바이오헬스)69.6 (가전)22.7 (2차전지)5.8

전산업생산지수(계절 조정)



자료 : 통계청

수출 추이



자료 : 산업통상자원부(통관기준)

국내외 금융시장 동향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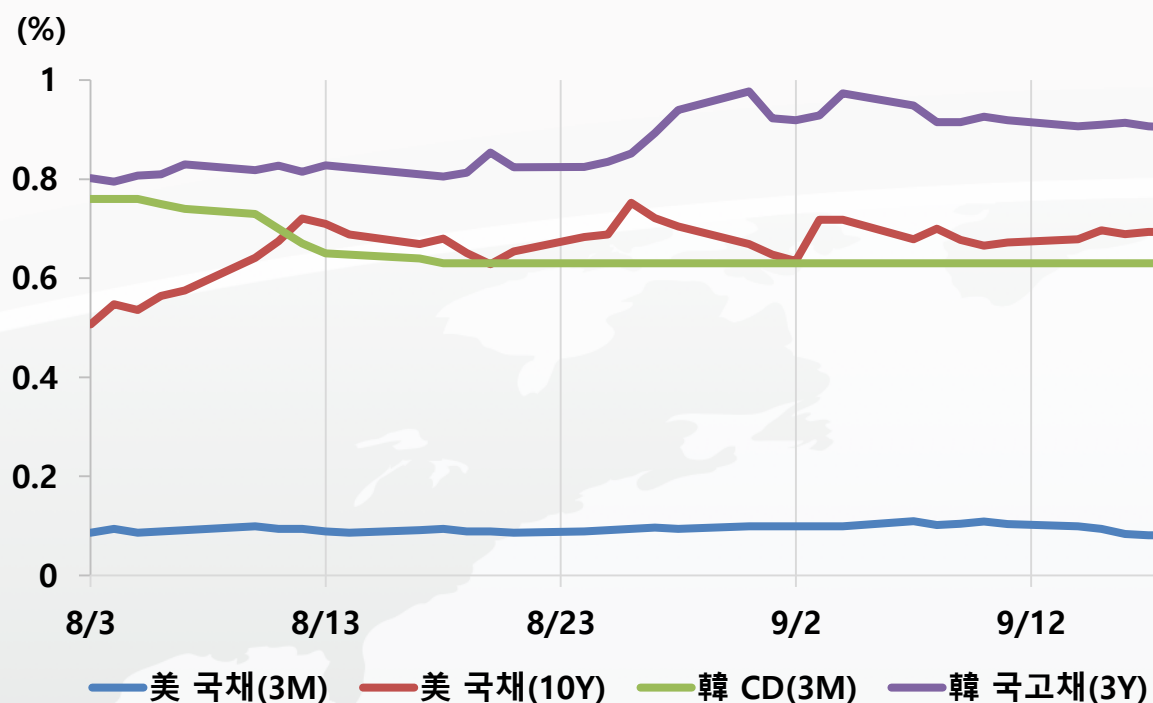
■ 금리 동향 : 8월말 높은 변동성 이후, 최근 안정 흐름

- (미국) FOMC(8.26, 현지시간) 발표 후 장기금리 상승, 이후 상승분 반납하며 박스권 등락 지속
 - 장기간 제로금리가 유지되는 가운데, AI* 도입에 따른 장기 인플레이션 상승 등으로 장기물 약세
 - * 평균물가목표제(Average Inflation Targeting)의 약자로, 연준의 물가목표(2%)를 단일 시점이 아닌 일정 기간의 평균치로 전환
- (한국) 적자 예산·4차 추경, 8월 금통위 실망감 등으로 8월 말 국고채 금리 급등, 이후 소폭 하향 안정화

■ 환율 동향 : 연준 제로금리 장기화 등으로 미 달러화 약세 지속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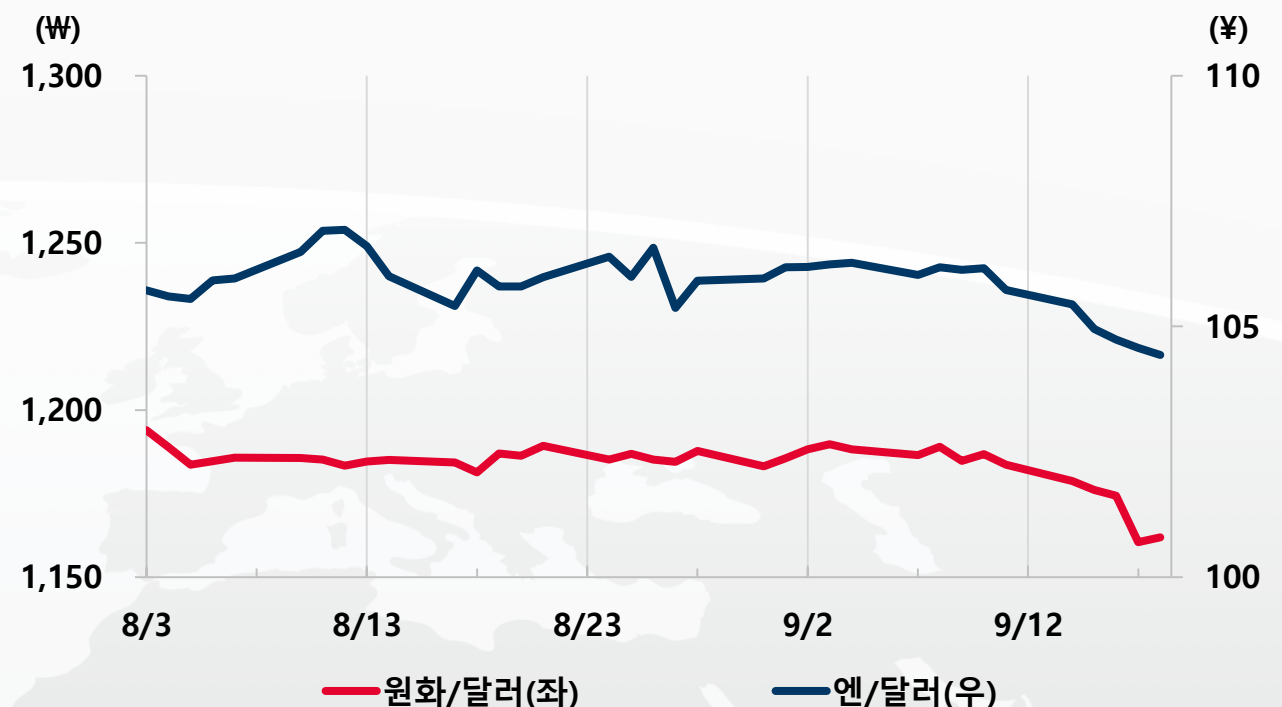
- (원/달러 환율) 글로벌 달러화 약세 속, 최근 중국 실물지표 호조에 따른 위안화 강세 등으로 환율 하락
 - 원/달러 환율(종가 기준)은 코로나19 확산 직전인 1월 20일(1159.1원) 이후 8개월만의 최저치(9.18. 11602원) 기록
- (엔/달러 환율) FOMC 경제 전망 불확실성 및 美 추가 경기대책 불투명 등으로 엔화 상대적 강세

韓·美 채권 금리 추이



자료 : Bloomberg 및 금융투자협회

달러 환율(對원화, 對엔화)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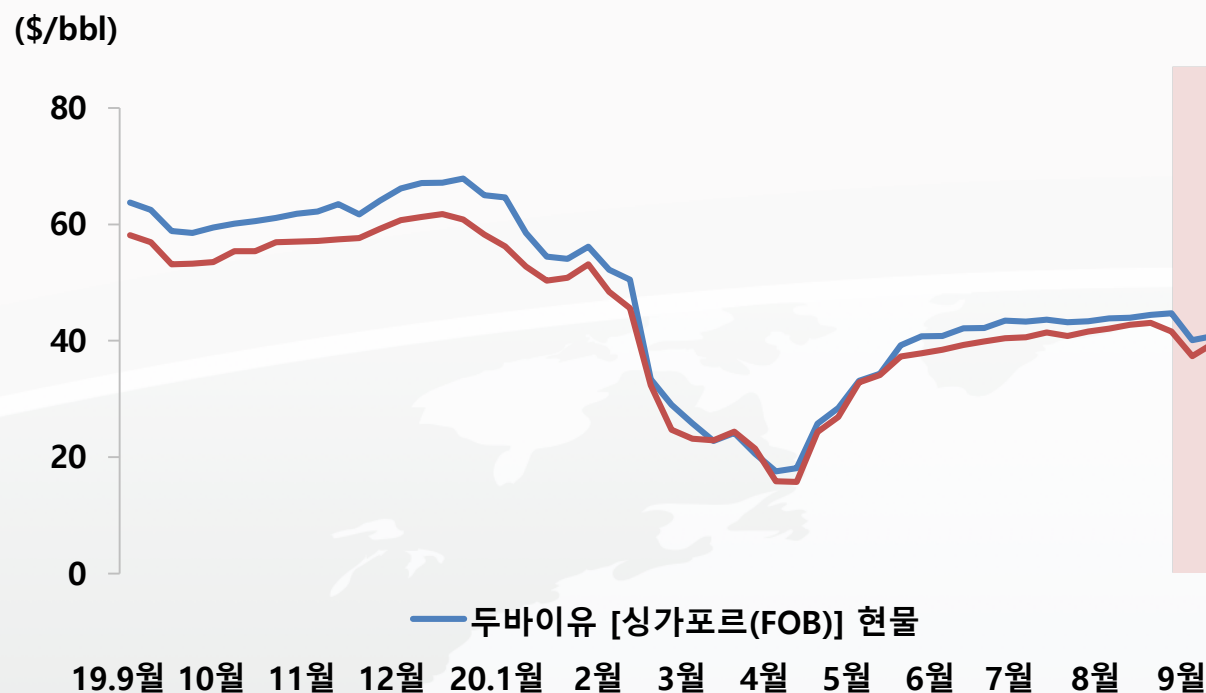
자료 : Bloomberg

국제 유가 및 천연가스 가격

■ 유가는 8월말 이후 허리케인 영향으로 급등락 거듭, 천연가스 가격은 9월 들어 하락

- (유가) 허리케인 영향으로 8월말 이후 9월 중순까지 급등락 거듭, 9월 중순 배럴당 40달러 초반대 기록
 - 8월 미국 원유재고 감소세, 미국 허리케인 피해 우려로 8월말 기준 5개월내 최고치 기록(두바이유, 8.31일 45.93 \$/bbl)했으나 허리케인 소멸에 따른 원유생산 재개로 유가가 하락하며 9월 초 배럴당 40달러선 붕괴, 이후 또다른 허리케인 접근으로 유가가 재상승하여 9월 중순 배럴당 40달러 초반대 기록(두바이유, 9.18일 43.02 \$/bbl)
- (가스 가격) 수요증가 기대감으로 상승하여 8월말 mmBtu당 2달러 후반대 기록 이후 하락, 9월 중순 2달러선 기록
 - 미국 LNG 수출호조 기대감 등으로 7월 중순 이후 천연가스 가격 상승세를 보였으나, 9월 중순 재고수준이 시장 예상치를 큰 폭으로 상회하면서 가격 하락세로 전환하여 9월 중순 mmBtu당 2달러선 기록

국제유가 추이



미국 천연가스 가격 추이



■ 8월 수주는 금년 들어 가장 좋은 실적이나 부진 지속

• 수주는 LNG선·대형 에탄운반선 등 수주로 다소 개선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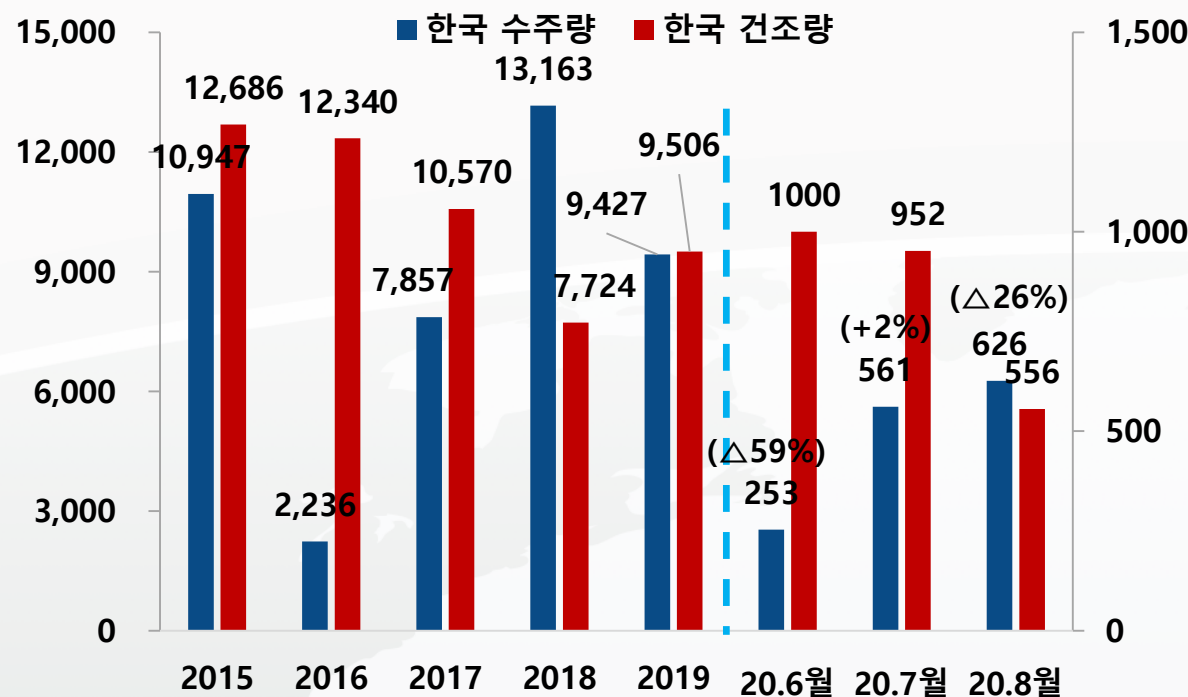
- 금년 1월~8월 누적 수주량 239만CGT(전년동기 대비 Δ 53.8%), 8월은 63만CGT(전년동월 대비 Δ 25.9%)
- 금년 1월~8월 누적 수주액 57.5억 달러(전년동기 대비 Δ 53.8%), 8월은 14.4억 달러(전년동월 대비 Δ 25.9%)
- 8월에는 대형 에탄운반선 4척, LNG선 2척 등 고부가 선박과 MR탱커 12척 등으로 2개월 연속 10억 달러 이상 수주 기록
- 한국 신조선 점유율은 8월 누적 29.4%로 중국(53.8%)에 이어 2번째이며 30% 수준 회복(CGT 기준)

• 선박 수출은 전년동월 대비 감소

- 금년 1월~8월 누적 수출액은 128.0억 달러(전년동기 대비 Δ 10.9%), 8월은 12.4억 달러(전년동월 대비 Δ 31.5%)

한국 조선업 수주 및 건조량 추이 (천CGT)

※ 괄호 안은 전년동월 대비 수주량 증감률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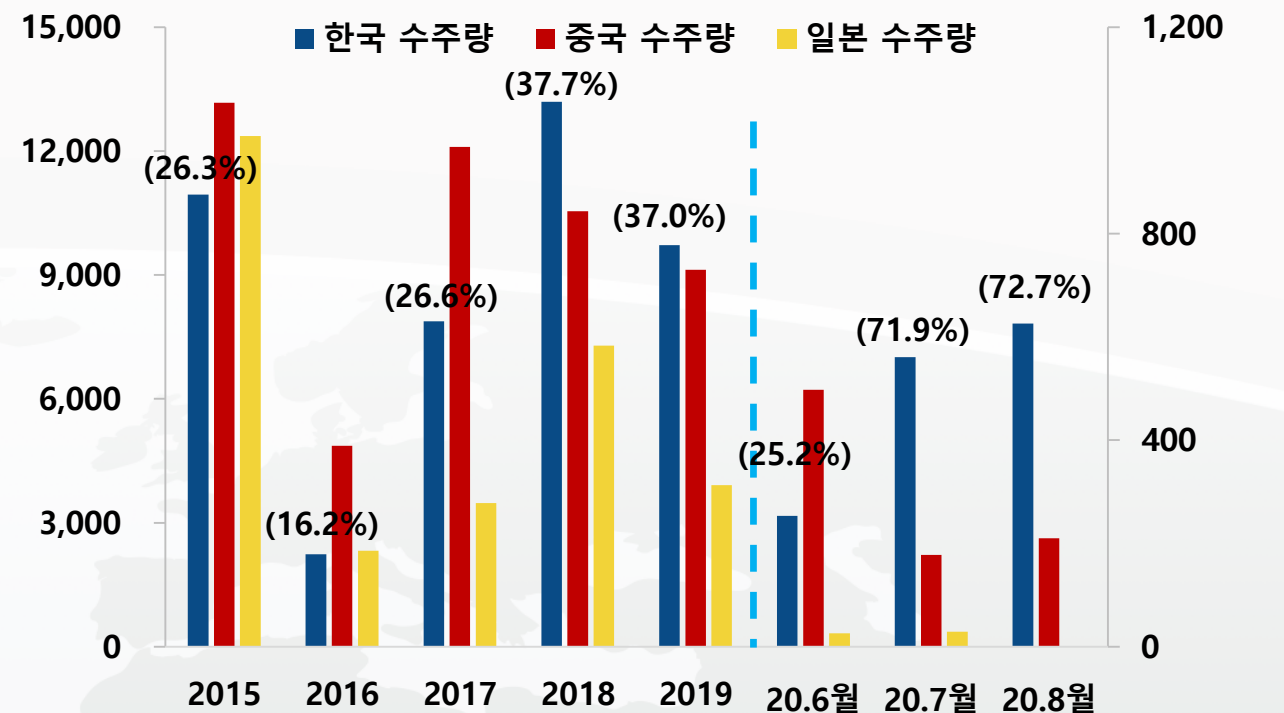


자료 : Clarkson

※ 월별 데이터는 우측 축 참고

한·중·일 수주량 및 점유율 추이 (천CGT)

(괄호 안은 당월 한국 수주량 점유율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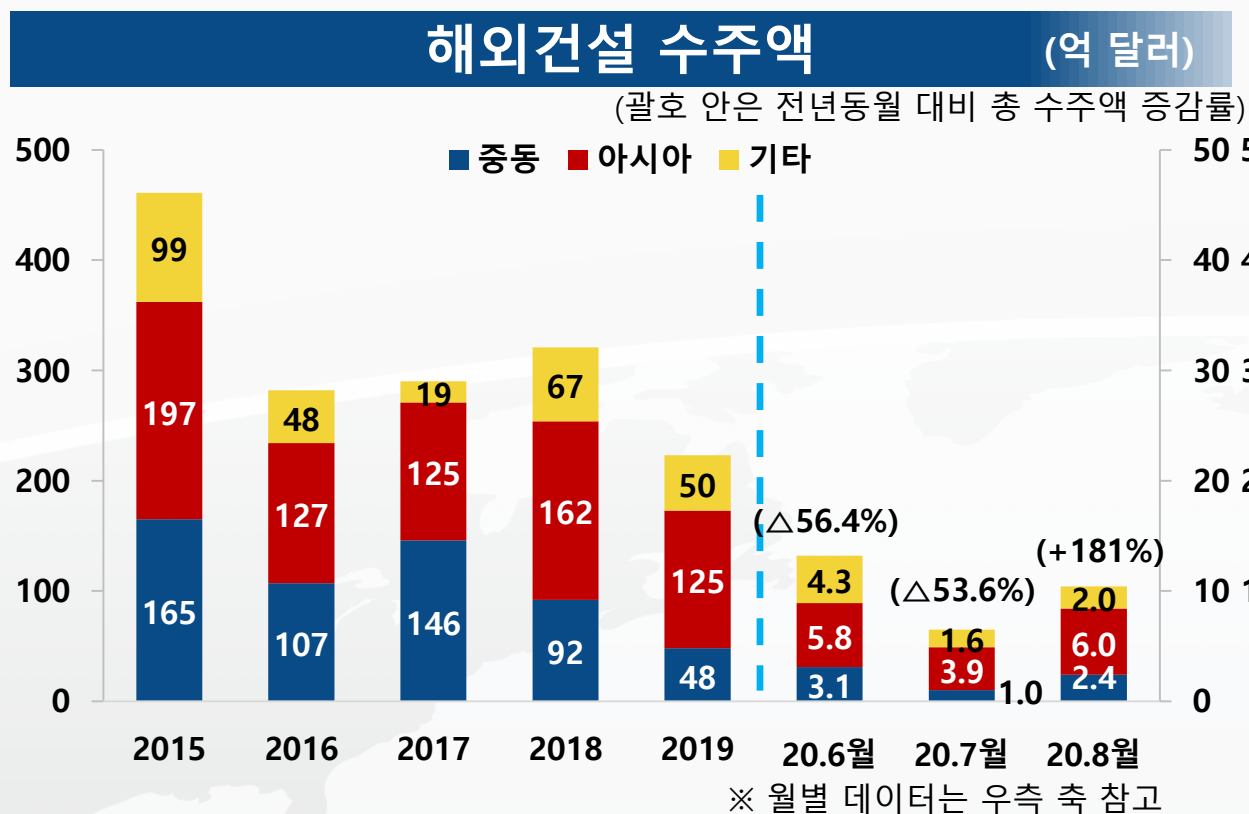


자료 : Clarkson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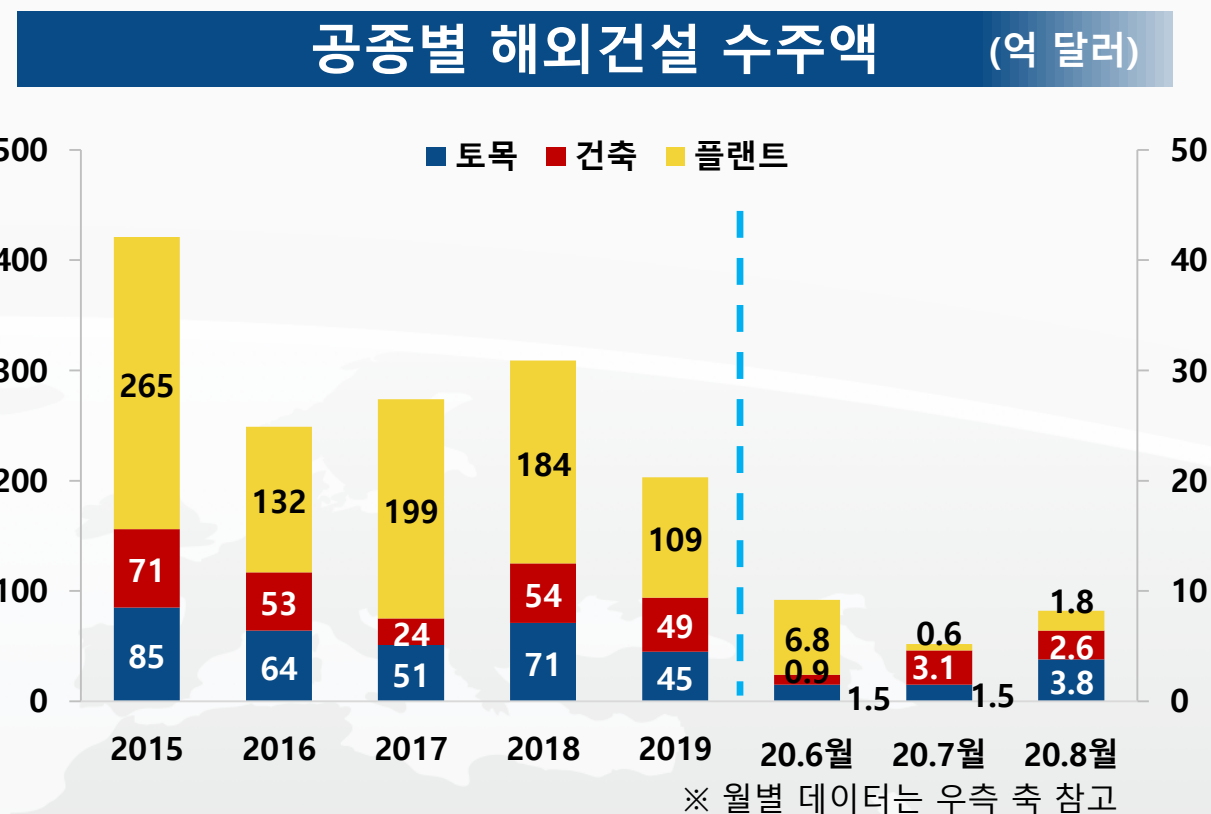
※ 월별 데이터는 우측 축 참고

■ 8월 해외건설 수주액은 전년대비 181% 증가한 10.4억 달러

- 지역별 수주액은 중동의 경우 전년 대비 23배 증가한 2.4억 달러, 아시아는 전년 대비 81.1% 증가한 6억 달러
- 전년 8월 중동 수주액은 1천만 달러에 불과해 올해 8월 수주액은 상대적으로 커 보이나 절대 금액 측면에서는 여전히 부진
- 공종별 수주액은 플랜트 1.8억 달러, 토목 3.8억 달러, 건축은 2.6억 달러를 기록해 토목 분야가 상대적으로 선전
- 8월까지 총 수주액은 전년 대비 30% 증가한 178억 달러를 기록 중이며,
코로나19 상황이 수주 성수기인 4분기에도 진정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연초 전망치 하향 조정 불가피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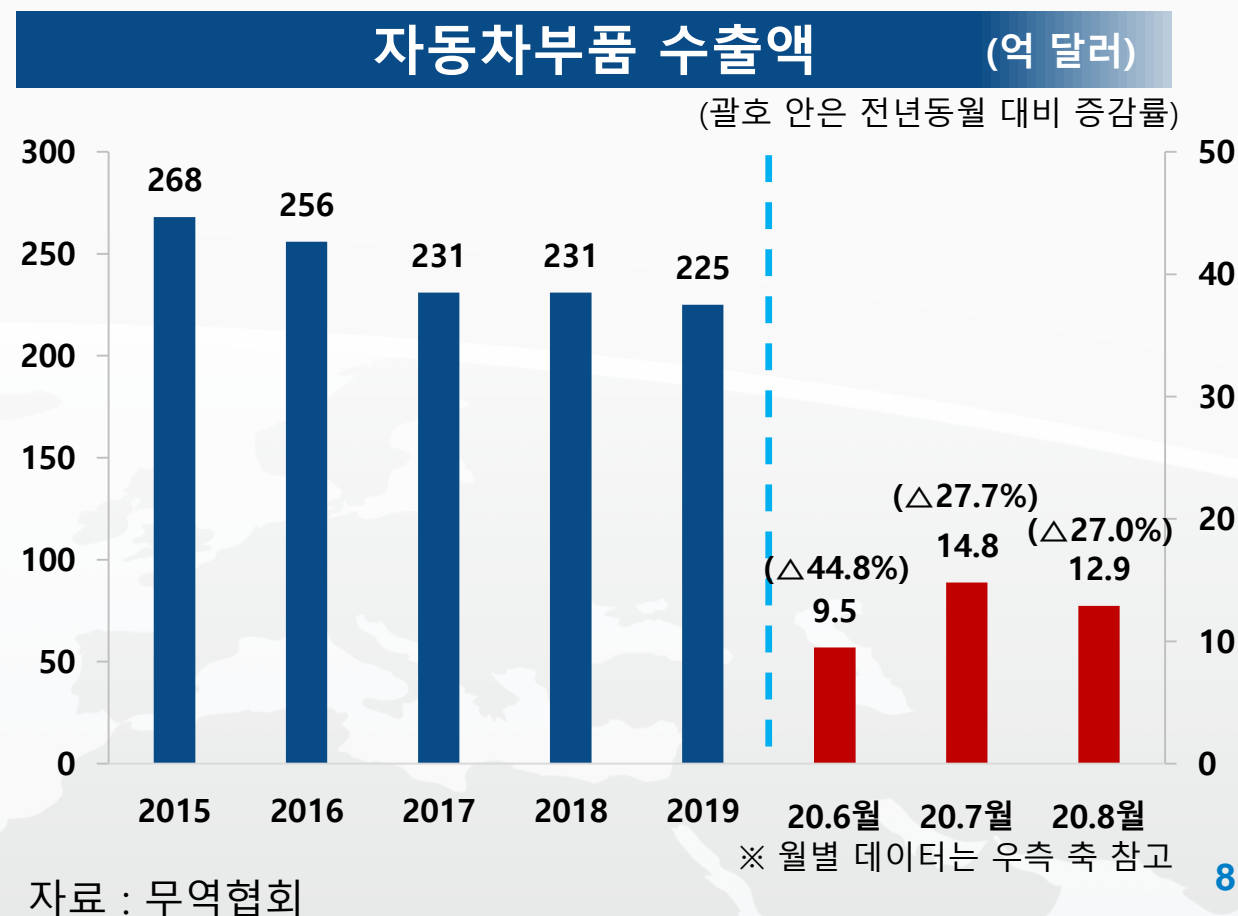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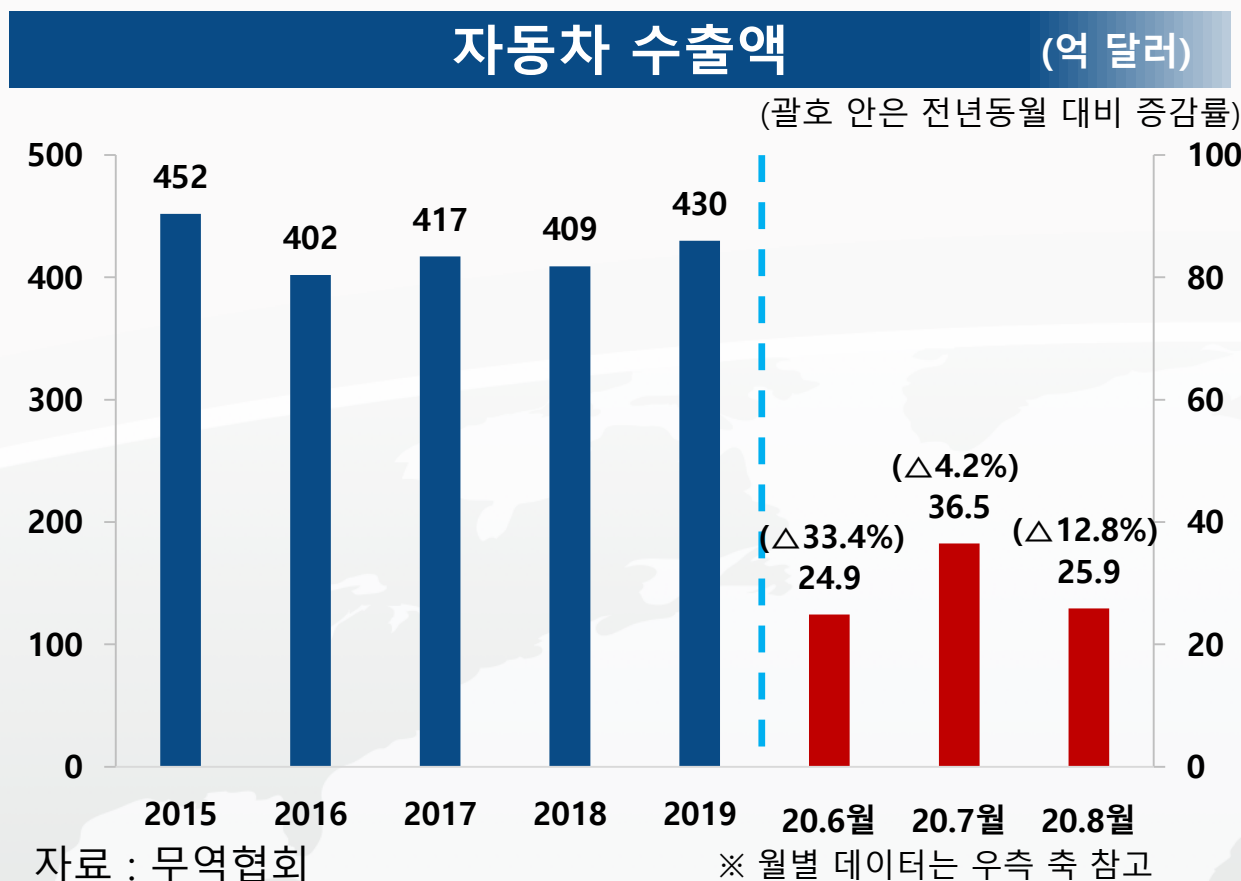
자료 : 해외건설협회



자료 : 해외건설협회

■ 8월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 수출액은 각각 26.0억 달러, 12.9억 달러

-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 수출은 전년동월 대비 각각 12.8%, 27.0% 감소하는 등 코로나19 영향 지속
 - 3~5월 판매 급감으로 인한 재고물량 및 신차라인 설비공사에 따른 생산중단 등으로 수출은 여전히 마이너스 기록
 - 유럽의 완성차 재고 부담에 따른 생산량 조정 및 러시아·브라질 등 신흥국 코로나 확산으로 자동차 부품 수출 감소
- 글로벌 코로나 19 상황이 진정되지 않고 있어,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 수출은 4분기에도 반등하기 어려울 전망
 - 코로나19로 인해 글로벌 자동차 수요가 살아나고 있지 않고 있는 상황이며, 4분기 코로나 재확산 우려 증가
- 전기차 등 친환경차량 수출액은 2.5억 달러로, 전년동월 대비 2.3% 감소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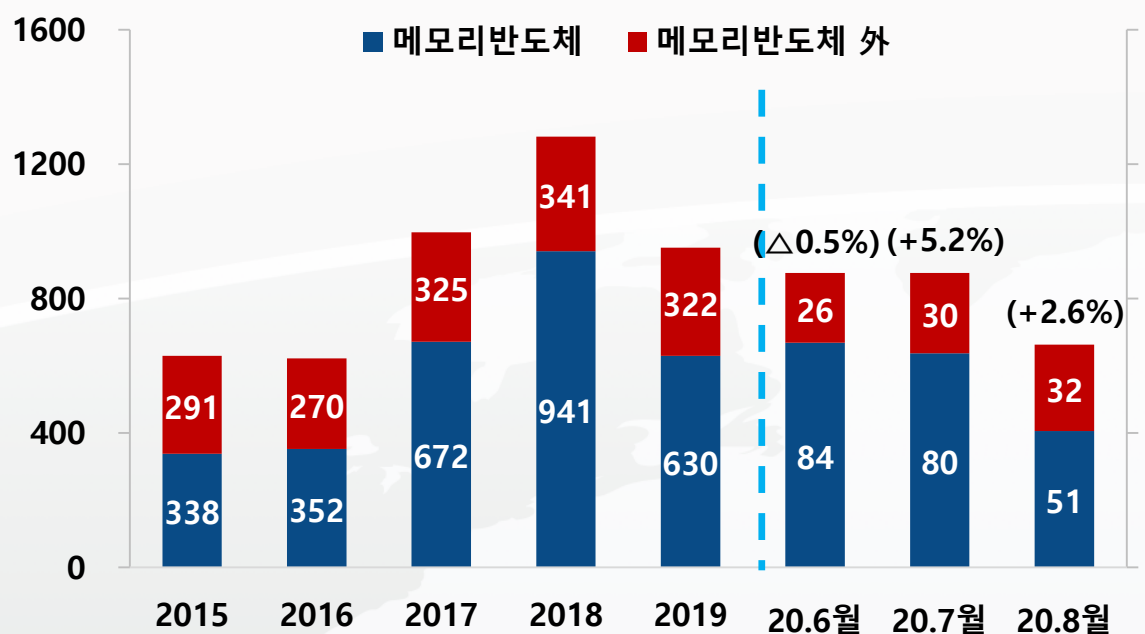
반도체·디스플레이

■ 8월, 반도체 수출은 전년동월 대비 2.6% 증가, 디스플레이 수출은 16.9% 감소

- 반도체 수출은 전년동월 대비 2.6%, 전월 대비 4.1% 증가한 82.9억 달러
 - 메모리반도체 수출은 서버, PC 수요 약세 등으로 전년동월 대비 2.3% 감소, 시스템반도체 수출은 파운드리 호조 등으로 전년동월 대비 16% 증가 * D램 고정거래가격(달러) : ('20.1)2.84→(2)2.88→(3)2.94→(4)3.29→(5~6)3.31→(7~8)3.13 (D램익스체인지)
- 디스플레이 수출은 전년동월 대비 16.9% 감소, 전월 대비 16.1% 증가한 18.0억 달러
 - 중국의 생산능력 확대, 한국기업의 LCD 구조조정 등으로 LCD($\Delta 22.7\%$) 수출은 하락세 지속, 하락폭은 소폭 축소 * LCD수출증감률(전년동월 대비 %): ('20.4) $\Delta 37.4 \rightarrow$ (5) $\Delta 36.4 \rightarrow$ (6) $\Delta 26.2 \rightarrow$ (7) $\Delta 23.4 \rightarrow$ (8) $\Delta 22.7$
 - OLED 수출은 코로나19 장기화, 스마트폰 수요둔화 등으로 OLED 수요가 감소하면서 전년동월 대비 18.9% 감소 * OLED 수출증감률(전년동월 대비 %): ('20.1)0.4 \rightarrow (2)2.6 \rightarrow (3)12.6 \rightarrow (4) $\Delta 25.2 \rightarrow$ (5) $\Delta 4.1 \rightarrow$ (6)13.4 \rightarrow (7) $\Delta 28.9 \rightarrow$ (8) $\Delta 18.9$

반도체 수출액 (억 달러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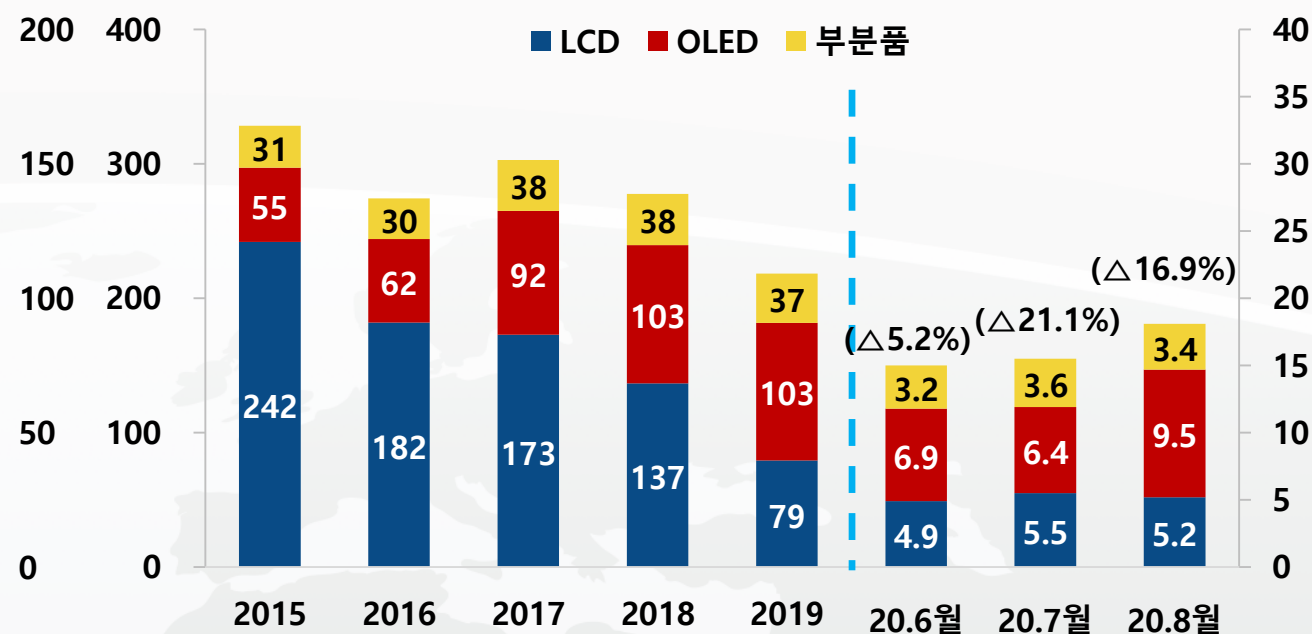
(괄호 안은 전년동월 대비 증감률)



※ 월별 데이터는 우측 축 참고

디스플레이 수출액 (억 달러)

(괄호 안은 전년동월 대비 증감률)



※ 월별 데이터는 우측 축 참고